아름다운 어촌 안내 체험행사 실시

전라남북도 네 곳에서 행복 만끽

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, 도시민들에게 어촌·어항·어장의 각종 체험거리를 소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'아름다운 어촌 소개하기' 체험행사가 전라도 곳곳에서 열렸다.

이번 행사에는 송고마을 82명, 접도마을 114명, 임촌마을 80명, 장자도마을 63명 등 4회의 행사에 수도권 지역 도시민 총 339명이 참가하여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.

각각의 주요일정을 살펴보면, 송고마을(5월 26~27일) 행사에서 26일 여수에 도착한 일행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사용하던 진남관(鎭南館)을 관람한 후 중식으로 물메기탕을 먹고 해양수산과학관을 관람하였다. 이후 송고마을로 이동하여 방파제 대낚시 및 양식장 견학의 시간을 가졌으며 석식 후에는 캠프파이어와 수산물 시식을 즐겼다.

다음날에는 영화 '혈의 누'의 촬영지를 산행한 후, 카페리를 타고 여천항에서 돌산항 그리고 여수로 유람하며 바다경치를 감상하였다.

접도마을(6월 2~3일) 행사에서 2일 정오경 접도에 도착한 일행은 조선 후기의 화가 허유(許維; 1807~1892)가 만년에 기거하던 화실인 운림산방을 관람하고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식인 개막이 체험 및 바지선 승선 등 지역문화체험을 즐겼다.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해넘이를 감상한 후 캠프파이어와 수산물 시식시간을 가졌다.

다음날 오전에는 남도 바다를 감상하면서 웰빙 등산로를 산책하였으며 이후 유람선을 타고 접도 일주를 하였다. 마지막으로 진도대교 전망대에서 전체를 조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.

임촌마을(6월 16~17일) 행사에서 정오경 완도에 도착한 일행은 방파제 낚시와 조개잡이 및 게잡이 체험과 해수욕을 즐겼다. 석식 후에는 바닷가 산책과 캠프파이어 및 수산물 시식 시간을 가졌다. 다음날 오전에는 자갈해변으로 유명한 정도리 구계등을 방문하여 기념촬영을 하였고 해상왕 장보고 세트장도 관람하였다.

장자도마을(6월 16~17일) 행사에서는 군산에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장자도로 이동하였다. 숙소 배정 후에는 해상낚시 체험과 석식이 이어졌다. 야간에는 갯벌에서 게와 조개를 잡으며 짜릿한 손맛을 느껴보았다. 다음날 오전에는 자전거 하이킹과 장자봉 등산을 했다.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새조망대인 군산금강철새조망대에서 철새 및 조형물을 관람하고 모든 체험행사는 마무리 되었다.

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날 행사와 관련된 사진과 참가후기 등을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(www.seantour.com)에 게재,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어촌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.